

사진 : 김상순 세실리아(문현성당·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연중 제15주일 (농민 주일)

제 1 독서 아모스 예언서 7,12~15

화답송 시편 85(84),9ㄱ~ㄴ과 10.11~12.13~14 (◎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후렴)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1.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2.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

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 2 독서 에페소서 1,3~14

복음환호송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마르코 6,7~13

영성체송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감사하며 걷는 평신도의 길에 함께 합시다!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평신도 희년 기념

평신도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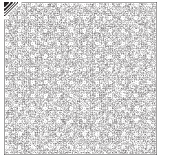
부산 7.21(토) 13:00~18:30 남천성당~오륜대순교자성지

울산 7.21(토) 13:00~16:30 복산성당~울산병영순교성지

▶ 13:00 감사미사 후 도보순례 (본당사목위원 및 전 교구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찬미받으소서"



신앙생활의 첫째 목표는 무엇일까?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수궁하기 쉽지가 않다. 내 잘 되려고 주님을 찾으니, 내 바람이 이루어질 때나 감사한다. 바로 사도는 다르다.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고 기도한다.(에페 1.3) 위대한 성인이니 그렇겠지 싶지만, 그의 찬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기도다. 왜 주님을 찬미할까? 주님께서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기 때문이다.(에페 1.3 참조) 무엇이 영적인 복일까?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에페 1.4 참조)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주님께 용서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

났기 때문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도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만난다. 은총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웃을 형제자매라고 하는 데서 은총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가진 사람이다. 제자들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은 세상을 파괴하는 세력이다.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고귀하게 창조된 인

간을 짓밟는 악한 힘이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인간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제자들도 그분의 일을 함께하도록 초대받았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 되돌아가라고 회개를 선포한다. 마귀를 몰아내고 병을 고쳐주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성장한다.

오늘은 농민 주일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당신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하셨다.(요한 15.1) 농민과 농업은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존엄한 자리다.

노우재
미카엘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매일 아침 입은 옷 깃에 성성자惺惺子 방울을 달게.
집앞 나뭇가지에, 또는 방문고리에 달아도 좋네.
햇빛소리, 바람소리를 맞게, 기쁜 손님을 맞듯이.

조식의 말씀이
초록 나무가지들 위로 날아다닙니다,
사방에서 성성자 소리가 들려옵니다

* 성성자(惺惺子)
: 남명(南冥) 조식 선생이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 사용한 방울

글. 강은교 글라라 시인(송도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7.16(월)~17(화)
노우재 신부(신학대학 교수)
7.18(수)~21(토)
김부수 신부(중앙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아나운서

7.17(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 임호성당 교리교사회
(김문경 신부 외 4명)

7.18(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 2018 한국천주교성지순례축복장 수여식
출연 :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7.18(수) 본당 리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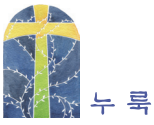
출연 : 광안성당 김철현 리포터

다정다감, 다섯시 월~금
17: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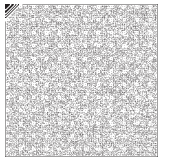
진행 : 조운진 아나운서

7.17(화) 별 다섯 개 영화음악

- 정의, 법에 관한 영화 음악 특집
출연 : 오성은 음악칼럼니스트



감자밭에 계신 하느님



얼마 전에 텃밭에서 감자를 캐다. 호미로 두둑을 헤치자 감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감자밭을 헤집고 다니는 동안 모든 잡념은 사라지고 오로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감자밭에서 만난 하느님은 이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느라 그 작은 씨감자 한 조각에서 5~10개의 새 감자를 맺게 하셨다. 감자밭에 굽병이 약은 물론 농약을 전혀 치지 않았더니 대부분 감자에는 굽병이가 파먹은 흔적이 남았다. 굽병이 상처는 보존성을 떨어뜨리고, 감자를 빨리 상하게 했다. 그럴 줄 알았지만 내가 덜 먹고 굽병이와 나눠 먹자는 생각에 약을 치지 않았을 뿐이다.

감자밭에 굽병이가 살게 하는데 뜻이 있었다. 감자는 뿌리가 따뜻해야만 수확량이 많다. 그래서 관행농법은 검은 비닐 피복을 씌운다. 나는 비닐피복도 하지 않고 농

약도 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많은 굽병이 때문에 감자 농사를 망치게 맞다. 그러나 나의 감자 농사는 관행농법의 80% 수확은 거두었다. 그 이유는 두더지 때문이었다. 두더지가 굽병이를 잡느라 땅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흙 속에 바람구멍을 많이 만들었다. 그 바람구멍을 통해 한낮의 따뜻한 공기가 감자 뿌리까지 닿았다. 여기에도 굽병이가 흙을 떼알 구조로 만들면서 흙 속의 수분과 양분을 넉넉하게 만든 효과도 봤다. 덕분에 내 감자는 굽병이 자국은 있지만 싱싱하고 맛이 좋았다.

아하, 굽병이라는 미물도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구나. 또 굽병이가 마구 번식하지 못하도록 두더지라는 천적도 창조하셨구나. 하느님의 계획아래 창조되지 않은 생명체는 없구나. 그러한 묵상들이 떠올랐다.

씨감자를 심을 때 작은 것은 통

째로, 큰놈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심었다. 그런데 통째로 심은 감자보다 여러 조각으로 자른 씨감자에서 많은 감자가 열렸다. 상처와 시련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아울러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곱이 매끈한 감자에는 얼마나 많은 굽병이 약이 뿌려졌는지도 알았다. 자연과 공생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굽병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병들게 하고 있었다.

농부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맡은 첩병이다. 인류의 첫 직업이기도 했다. 그토록 신성한 직업인데도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 주일을 맞아 농업과 농부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한다.

■ 김 상 진 요한

언론인 daedan57@hanmail.net



부산교구 레지오 마리아 활동

한국 레지오 마리아는 1953년 5월 31일 목포 산정동성당에 브레시디움 창단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 교회는 일제 강점기까지 사회적인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외국의 구호물자 지원과 더불어 레지오 마리아의 활동이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레지오 마리아는 모성이 강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잘 맞는 신심운동이며 또한 조직이 근대식이어서 일상불란한 지휘통제를 발휘하여 많은 결실을 맺었다.

우리 교구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단체가 레지오 마리아 운동이었다. 1956년 1월 3일 서대신성당에 '영원한 도움의 브레시디움' 창단되었고, 7월 17일에는 한국 최초의 소년 브레시디움 '소년의 모후'가 창단되었다. 이후 레지오 마리아 운동은 급속히 확산되어, 그해 11월 2일 '원죄없으신 꾸리아'가 초량성당에서 창단되었다가, 1957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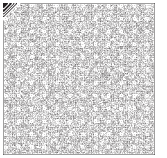
10일 꼬미시움으로 승격되었다. 1959년 11월 15일 중앙성당의 '바다의 별' 꾸리아가 꼬미시움으로 승격하고, 초량성당의 '원죄없으신' 꼬미시움은 꾸리아로 환원되었다.

교구 설립 이후 레지오 마리아는 교구의 수호성인 '목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따른 목주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교도권에 대한 철저한 순명과 결속력으로 활동 범위가 다양해졌다. 레지오 마리아 운동 10년(1966년)이 되었을 때, 1개 꼬미시움 산하에 16개의 꾸리아, 193개의 브레시디움이 설립되었고, 레지오 행동단원과 협조 단원을 합쳐 7,132명이나 되었다. 지금은 1개의 레지오, 25개의 꼬미시움, 261개의 꾸리아, 3,246개의 브레시디움, 44,273명의 단원(전 신자의 9.2%, 2018년 5월 현재)이 활동하고 있다. 계속해서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 한건 신부(순교성지사목) jubo@catb.kr



농민주일 - 생태적 통공(通功)을 고백하기



어느 농민이 제게 들려준 말입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제가 아는 것은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도 밥을 먹지 못하면 생명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생명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생명의 통공에 따른 결과일 터이지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내어주는 그 공로의 연결로 지금 여기의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못생명들, 농민들과 의인들과 나를 있게 해준 이들의 공로가 전해져 우리의 삶이 지금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통공을 통해 닫혀 지고, 갈라진 한계에서 깊은 친교에 이르게

됩니다. 친교란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소비와 죽음으로 치닫는 세상 안에서, 길을 잃은 현대 사회 안에서 다른 피조물과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문제를 나의 아픔으로 여길 때 비로소 생명통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생명존중과 생활공동체 운동만이 함께 살아가는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생명의 먹을 거리를 제대로 나누는 것이 생태적인 신앙고백입니다. 믿음과 생활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참 공동체를 지향하고 믿는 이들의 진정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교회는 23년 동안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산물 나눔을 넘어 교회 정신을 통해 생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투신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

하는 생태신심운동입니다. 이는 교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소비주의의 바탕인 이익과 눈에 보이는 가치에만 머물지만 교회는 무엇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투신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신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나누어 먹이십니다. 그것을 받아든 우리들의 식탁도 생명의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주일을 맞아 더 깊은 친교와 생태적인 통공을 삶 안에서 고백하는 우리이길 청해봅니다.

■ 김인한 알베르트 신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생명환경사목위원장

제23회 농민 주일
담화문 바로보기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전에 "삼가 아뢰오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미사 중에 다함께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나면, 영성체 예식을 시작하면서 사제는 이런 초대말로 주님의 기도를 인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삼가 아뢰다”는 말의 어감이 사극 같다 여길지 모릅니다.

헌데 그 전에 “삼가 아뢰다”는 말의 깊이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말 “파레시아”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40번 등장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령에 힘입어 말하다’(1 코린 12, 3)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다’(에페 6, 19)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레시아는 유대교 회당에서 성령에 힘입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그리스 문화에서 자유인이 법정이나 대중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순교자가 목숨을 걸고서 자신의

신앙을 떳떳이 밝히며 진리를 증언하는 모습, 영성가들이 하느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드리도록 이끄시는 전능하신 성령의 힘을 동방과 서방의 전례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아름답고 전형적인 표현으로써 담대함(파레시아), 단순 소박함, 자녀다운 신뢰, 기쁨에 찬 자신감, 겸손한 대담성,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등으로 표현하였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778항)

이제 “삼가 아뢰오니”라는 주님의 기도 초대말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신가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 임성근 신부(우동성당 부주임) pantaleon@naver.com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축복장 수여식



지난 7월 6일(금) 교구청 5층 강당에서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축복장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한국 천주교 성지 111곳을 완주한 44명에게 손삼석 주교가 축복장과 완주자

의 이름을 새긴 십자가상을 수여했다.

손삼석 주교는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순례 중에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된다.”며 “많은 성지를 순례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진정한 순례는 순례 중에 마음의 양식을 얻어, 순교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완주자들에게 당부했다.



울산대리구, 호스피스 교육

울산대리구 신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대리구청에서 '2018년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이해'에 관해 심도 깊은 내용으로 진행

되었고,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대리구(대리구장 : 권지호 신부, 담당 : 홍준기 신부) 주관 / 116명 수료



중앙성당, 안나요아킴대학 개교 20주년



우리 교구 첫 노인대학인 '안나요아킴대학'이 개교 2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6일(금) 주교좌 중앙성당에서 역대 학장들을 초대하여 재학생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동대신성당, 성체조배실 축복식



7월 1일(일)
주임 : 최승일 신부, 회장 : 신윤열 예로니모

구포성당, 그리스도의 모친 Pr. 2,000차 주회



7월 4일(수)
주임 : 이승훈 신부, 단장 : 정금화 미카엘라

믿음의 해를 지내는 우리들 ⑧

5지구 청년연합회(지도 : 유상우 신부) 주관으로 지난 7월 1일(일) 반여성당에서 5지구 청년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믿음 증진을 위한 1일 피정'이 있었다. 이번 피정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민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신천지와 유사종교'란 주제로 특강, 생활성가팀 '선율'의 축하공연, 찬양 미사 봉헌 등으로 진행되었다.



5지구 청년연합회, 일일피정
7월 1일(일) 반여성당



석포, 성실하신동정녀(제17Co.) 평의원 연수
7월 8일(일) 새에루살렘공동체



물금, 사목위원 및 제단체장 연수
7월 7일(토)한티성지



울산대리구 1지구 평협
"믿음의 해" 7월 11일(일) 아음성당

교리성당, 소방 교육



6월 24일(일)
주임 : 김영곤 신부, 회장 : 이승덕 알폰소

교 구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7.16(월) 10:00(목주기도), 10:30(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 629-8760(성소국)

2020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모집 및 피정

· 8.18(토) 14:00~19(일) 13:00 · 부산 은혜의 집
대상 : 사제성소에 관심 있는 현재 고2, 일반
회비 : 3만 5천원 / 마감 : 8.7(화)
문의 : 629-8760 * 2020학년도 신학대학에 지원할 지망자는 반드시 이 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기관·제 단체·위원회

해양사목 월미사

· 7.16(월) 14:00 · 가톨릭센터 3층
주례 : 이균태 신부 / 문의 : 464-2707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07. 7. 21. 함영상(비오) 신부님

'가톨릭부산' 후보 2500호 기념

후보에 바란다 & 축하 메시지

기간 2018.7.1(일)~8.15(수)

교구 홈페이지 후보에 바란다 게시판에 개선했던 되었으면 하는 점, 새롭게 다루었으면 하는 점 등을 남겨주시거나,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주제를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후보가 되기 위해 많은 의견 바랍니다.

꾸르실로 참가 신청 접수 및 마감

제410차(형제) : 7.19(목)~22(일)
제411차(자매) : 7.26(목)~29(일)
문의 : (055)388-5734, 5733(팩스), 본당 간사

시각장애인선교회 후원회 미사

· 7.16(월) 12:00 · 선교회 3층 성전
주례 : 박성태 신부 / 문의 : 464-3909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7.17(화) 14:00 · 가야성당
성모님께 봉헌식과 성체강복 및 안수
지도 : 윤명기 신부 / 문의 : 010-8879-2376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7.19(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제 :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문의 : 515-0030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7.21(토) 11:00 ·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 462-1784

미리보는 전례꽃 월미사 및 특강

· 7.23(월) 10:30 · 교구청 2층 성당
강사 : 조혜자(울산전례꽃꽃이연구회 회장)
문의 : 010-4554-1173, 010-2556-6380

가톨릭센터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위한 합창단원 모집

대상 : 문화공연 합창음악을 함께하실 분
오디션 : 8.6(월) 20:00 가톨릭센터 302호
자유곡 1곡과 Polyphony초견 (악보 당일 제시)
정기연습 예정일 : 매주 월요일 19:00 가톨릭센터 302호 / 문의 :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메리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 60세 이하(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수자 및 예정자, 최근 1년 이내 사별경험 없는 분) / 모집 : 7.23(월)~8.17(금)
문의 : 461-2340(담당 수녀)

평화 여성의 전화 상담 및 쉼터

월~일(24시간) 상담 가능 / 문의 : 467-7897



아흐레 만에 성경 몽땅 읽기!

장재봉 신부와 함께 하는
'8박 9일 성경 통독 피정'
에서 가능합니다

#일시 : 8월 3일(금)~11일(토)
#장소 : 양산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
#문의 : 선교사목국 (051) 629-8720~2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음이 기도회
· 7.16(월) 19:30 전포성당
· 7.18(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일 치유기도회
· 7.18(수) 10:00~16:00
강사 : 오복희 자매(서울대교구)
- 철야기도회
· 7.20(금) 22:30~14(토) 04:00
강사 : 마진우 신부(대구대교구)
- 444차 젊음이 성령묵상회
· 7.20(금) 18:00~22(일) 17:30
회비 : 10만원(교재비 없음)
버스 : 신청 시, 문자로 알려드림
- 445차 일반 성령묵상회
· 7.27(금) 19:30~29(일) 17:30
회비 : 10만원(교재비 5천원 별도)
버스 : 동래 3번 출구 18:30
- 446차 일반 성령묵상회
· 8.3(금) 19:30~5(일) 17:30
회비와 버스는 445차와 동일

Senda 찬양스토리 (주님께 가는 길)

· 7.21(토) 15:00 · 서면성당 센다 / 참가비 : 1만원
출연 : 이영훈 신부, 송동진, 계만석, 박소정, 솔브릿지
주제 : 주님은 나의 목자 / 문의 : 010-9861-9064

부산ME 소개모임

부산 : 8.13(월) 20:00 남천성당
울산 : 8.12(일) 14:30 복산성당
360차 ME주말 : 8.24(금)~26(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 수시 / 문의 : 010-2703-0155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울산가톨릭합창단 단원 모집

Tenor, Bass 각 0명
문의 : 010-3919-4973(총무)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 464-3909
·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3층 성전(박성태 신부)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월요일, 금요일 14:00~15:30
문의 : 515-0030

혼인미사 예약 및 예식 안내

혼인미사 예약 접수 : 9.2(일) 09시부터
혼인미사 예식 시작 : 9.8(토) 11시부터

토, 일, 공휴일 : 11시, 13시, 15시, 17시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주)씨피여행사

배상섭 신부님과 함께하는 인도순례
출발일 : 10/7 (대한항공 부산 출발)
토마스 사도, 하비에르 신부님의 성지와 함께 인도여행(바라나시, 타즈마할, 아그라, 델리 등) / 9일 순례경비 : 340만원
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

도로연수

경찰청 지정 전문학원강사 책임 지도
전문강사 : 김 정 근 (바실리오)
010-6555-8655
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오두종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 오두종(오한)
805-0200
카톡상담 ID : 오두종성형외과
서면 주디스타워 맞은편 우리은행 5층

하은한의원

HAEUN NATURE MEDICINE
한방성형 · 암 · 디스크
원장. 이상 미 (대대레사)
010-5519-0959
부산시 수영구 남천서로 5 (남천동)

50년 전통 명신당

묵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공옥(바오로) 김영연(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범일점 맞은편

임플란트, 틀니, 심미치료 뉴욕플란트치과

원장. 송 현엽 (가브리엘)
미국 뉴욕치대 유학
634-2828
지하철 1호선 범일역 10번 출구 바로 앞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칼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

가톨릭여행사

9/29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375만원
10/8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원
11/26 멕시코, 페루, 쿠바 12일 595만원
(02) 319-2533

제주도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

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외과 이상 열(베드로)
516-0888

주사위 생활성가 찬양팀원 모집

모집부문 : 보컬과 건반 등 악기연주자
대상 : 하느님 찬양을 원하는 교우(전공 및 나이 제한 없음) / 문의 : 010-3483-0330(송동진)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7.20(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밀양가르멜수녀원 후원회 미사

· 7.20(금) 11:00 · 남천성당 대성당
주례 : 이흥기 몬시뇰 / 문의 : (055)353-6597

예수회 새사제 첫미사

· 7.20(금) 14:00 · 남천성당
새사제 : 김주찬, 이훈관, 한현배, 정희강
문의 : 010-9344-3843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여름(휴) 가족피정

1차 : 7.28(토)~30(월) / 2차 : 8.3(금)~5(일)
· 성심영성센터 / 문의 : 581-3114

부산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 9.4~2019.2.26(6개월) 매주 화요일
낮반 14:00~16:00, 저녁반 19:00~21:00
· 청년반 - 9.3~2019.2.25(6개월)
매주 월요일 19:00~21:00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없으신 성심)
· 마리아 피정 센터 / 회비 : 15만원(분납 가능)
내용 : 성경, 전례, 역사속의 마리아, 영성, 사도직, 발원 등 / 문의 : 010-9620-4820, 634-4845

부산교구 News & Focus 유튜브 방송
가톨릭라이프부산
www.catholicbusan.or.kr

- ▶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최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알림과 소식 - 가톨릭라이프부산)

예수고난회 일일피정

· 7.16(월) 14:00~17:00 · 중앙성당 소성당
주제 : 내면 아이 / 강의 : 장명일 신부
문의 : (02)924-8627, 010-9309-1388

분도명상의집 렉시오디비나(성독) 월모임

· 7.28(토) 10:00~17:00 · 부산 분도 명상의 집
참가비 : 1만 5천원 / 준비물 : 성경, 미사 준비
문의 : 010-3271-0766(권 벨라벳다)

향심기도 하루피정

· 7.29(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강사 : 왕영수 신부 / 신청 : 7.25(수)까지
참여비 : 1만원(중식 포함)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8.6(월)~9(목) · 나가사키 순례
· 8.16(목)~24(금) · 이스라엘 순례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성심기도원 무료찬양치유피정

· 7.20(금) 21:00~22(일) 15:00
· 성심교육관 / 문의 : (031)262-7600

한티순교성지 피정

· 7.23(월) 10:00~16:00 · 한티순교성지
주제 : 나보다 더(순교영성)
강사 : 권동근 신부(한티순교성지)
문의 : (054)975-5151

수발리에 마음의 축제

· 8.10(금)~12(일) · 강화도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주제 : 믿음, 듣기 -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
임을 알라(시편 46.11) / 참가비 : 6만원
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미혼 남녀 선착순 40명
문의 : 010-4846-6956, kketnibi@naver.com
주최 :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수녀회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한국외방선교회	7.21(토) 14:00 원하는 시간	서울 개화동 수도원 원하는 장소	010-3800-1579 010-2730-8691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례조각초 전시회 개최
전 시. 8/10(금)~12(일) 10:00~19:00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센터 3층 강당
(무료주차 가능, 마일버스 이용 시 간호대학 입구 하차)
문의 : 510-0951~3 / edu.cup.ac.kr

비수술치료부터 고난이도 수술까지
메리놀병원 정형외과
- 전문의 협진 진료
어깨통증 클리닉, 주사치료, 무릎 통증, 발목 & 발 통증, 고관절 통증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문의 : 정형외과 461-2505

가톨릭선학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무료영화상영
아빠를 빌려 드립니다
일시. 7/16(월) 19:00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예술전용관C&C)
대한민국을 웃고 울릴 아빠 렌탈 프로젝트
18:00 후원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수맥과 건강 불면증,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정신집중 안됨 치료해도 효과를 못보시는분, 문의 환영 사무실 517-3233 서순복(말바나) 010-3862-6834</p>	<p>동의의료원 무릎관절센터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토마스)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관절센터 예약 850-8747</p>	<p>손·발·관절 중점 진료 성가병원 내과(위,대장 내시경)·공단검진·선원검진 수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우식 (알렉산델) T.645-9771~5 F.642-5175 지하철 범일역 9번 출구, 현대백화점 옆</p>	<p>해충 방역 소독 악취완전제거 허정희(토마스) 010-9689-8119 (NAVER : 바이빅스)</p>
<p>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파티마 성지 방문일정 10/4 (429만원, 전문 인솔자 동행) 가톨릭트래블 www.catravel.co.kr 070-4086-0207</p>	<p>고운세상 김양재 피부과의원 (피부과 최초 국제의료기관평가 JCI 인증 획득) 원장. 김양재 (다미아노), 성재영, 정봉성, 조현호 www.doctorkim.com 805-1004 서면 주디스타워에서 뱀내골길 50m 올리브영 5층</p>	<p>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 (베드로)</p>	<p>24시간 요로결석 치료 / 전립선, 요실금 SNU서울비뇨의학과 서울대 출신 / 원장. 박정민 가브리엘 714-1725 서면 롯데백화점 정문 옆 (도보 1분)</p>	<p>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90%혜택) 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시 수리 김 무 나 (클라라)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도역 4, 6번 출구(3층, 빨간색 간판)</p>